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소박한 소망



이 현 화*

건물없는 도서관, 종이없는 시대, 각종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고 인터넷의 발전과 첨단기기의 발전으로 마치 도서관과 사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사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종기기와 전산지식으로 무장해야만 한다고 했다. 물론 모두 맞는 이야기다. 점점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디지털시대에 사서들이 예전의 전통방식만 고수한 채 이론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이라는 현장에서 그래도 몇 년간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아직도 컴퓨터와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사무적인 태도보다 동네 이웃 사촌같은 푸근함과 따스한 말 한마디를 이용자들은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여건들이 사서들로 하여금 작은 미소마저 잃게 만들 때가 있다. 여타종류의 도서관에 비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면 물론 보람되고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짜증나고 속상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은 모두들 가끔은 아줌마도 되었다가, 아가씨, 언니, 아님 단순 책지킴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이런 정도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서관의 책 한권, 물건 하나, 작은 회원증 하나도 모두 소중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그것들을 모두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사서(현재 휴직 중), libhyun@hanmail.net

버리거나, 도서관이 단순히 공부하는 독서실로 인식해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도서관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이용했을 때 진정으로 그 가치가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그래도 늘 내가 도서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일하는 도중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게 잠시 휴직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몇년간 살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싱가포르에 살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싱가포르 도서관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말에 도서관 회원증도 만들고 책도 빌려보고, 아이들 스토리타임도 들어보고 했다. 싱가포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다.

대출반납이 모두 자동화 되어 있는 것이며, 카드 하나로 싱가포르의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24시간 전화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출반납에 대한 상황을 알수 있는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럽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높은 의식이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작은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간단한 식사종류와 간식류, 각종 음료들을 판다. 도서관 자료실과 벽이나 경계 없이 단순히 코너가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쪽으로 음식을 들고 오는 이용자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도서관 전체가 어찌나 조용하고 깨끗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늘 도서관에서 음료나, 과자를 들고 오는 이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곤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인 우리나라와 달리 이곳은 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약간의 돈을 받고 있었다. 단순히 유료와 무료의 차이 때문일까? 아마도 그것만은 아닐거라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늘 집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에 대한 높은 의식수준 그 자체의 문제일 것이다. 사실 나만해도 내가 사서가 되지 않았더라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거라 생각된다. 어려서 도서관을 이용했던 기억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도서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과의 실랑이나, 단순업무에 지쳐버려 사서의 참된 업무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사서들의 소박한 바람이다.

도서관의 단순한 업무들, 대출 반납이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간단한 질의 응답은 모두 자동화된 기계가 맡아서 하고 사서는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해 진정한 참고봉사와, 장서개발에 대한 연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도서관 이것이 바로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이다. 멋진 가구와 첨단장비가 아닌, 이용자와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용자들은 성인이 되어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